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8월 1호

◆ 번역 기사

1. 국발개위 등 7개 부처 「항만 수납비용 정리 및 규범화 행동명안」 발표
国家发改委等七部门发文 进一步清理规范海运口岸收费
2. 중국 최초 한중일 국제전자상거래 프로젝트 엔타이(烟台) 보세구 구축, 보이해(渤海)페리 공동 참여
国内首个中日韩跨境电商项目落户烟台综合保税区 渤海轮渡签约共建
3. 하이난 양포(洋浦) 해운업 발 보조금 지급, 금년 1억 위안 달할 듯
洋浦发放补贴促航运业发展 今年补贴累计达1亿
4. 중국선급(CCS), 선박업계 데이터 새로운 생태권 구축
中国船级社携手业界共建船舶行业数据新生态
5. 중국 항만 물동량 회복세 둔화(7월 21일~7월 31일 항만생산 모니터링 및 분석)
中港协: 港口生产运行监测与分析
6.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 5대 안벽크레인 추가 투입
洋山港四期自动化码头: 5台桥吊到港 装卸能力提升约25%

◆ 기타 동향

7. 허베이(河北)성 해운·항만산업발전중심 설립
河北省港航事业发展中心揭牌成立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06_1341261.shtml
8. 푸젠(福建) 해상실크로드 특송화물 항로 개척
福建“丝路海运”快捷航线首航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06_1341257.shtml
9. 하커우(海口)세관 19항 조치 발표를 통해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
海口海关出台19条措施 稳外贸稳外资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07_1341297.shtml
10. 련원강항만과 SITC와 전략적인 협력 협의 체결
连云港港口控股集团与海丰国际控股签署战略合作协议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04_1341105.shtml
11. 창장 최초 연안 유람선 운영 재개
长江首艘跨省游轮复航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10_1341418.shtml
12. 쓰야(三亚), 해상 실크로드 연선 국가들을 위한 국제전자상거래센터 건설
三亚将打造面向海上丝绸之路沿线国家的跨境电商服务中心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10_1341373.shtml

◆ 기타 동향

13. 장시성(江西省)도 항만 통합 완료

又一省份港口整合基本完成

<https://mp.weixin.qq.com/s/WjeNValkKp0QOFuWZ6CJcA>

14. 광둥성 잔장(湛江)항 국가 40만 톤급 철광석부두 계획에 편입, 현재 항로 확장 중

广东湛江港被列入国家40万吨铁矿石码头规划, 正在扩建航道

<http://www.port.org.cn/info/2020/206197.htm>

15. 저장성 패키지 정책을 통해 항만 AMP 시설 지원, AMP 서비스비용 면제 실현

浙江一揽子政策支持靠港船用岸电 率先实现全省范围免收岸电服务费

<http://www.port.org.cn/info/2020/206211.htm>

16. 교통운부수, 2035년까지 교통부분 '신형인프라(新基建)' 건설 가시화 계획

交通运输部: 到2035年交通领域新基建取得显著成效

<http://www.port.org.cn/info/2020/206175.htm>

17. 선전 엔티엔(盐田)항, 주식증자로 12억 위안 유치하여 항만인프라 확충

盐田港募资12亿元投建两大项目

<https://mp.weixin.qq.com/s/Lxg2scY5fpUYlrB81X3itw>

18. 올해 상반기 창장 간선항만 화물물동량 15.3억 톤, 동기대비 0.1% 증가

上半年长江干线港口货物吞吐量达15.3亿吨

<http://www.port.org.cn/info/2020/206208.htm>

작성자 : 희가혜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세원 중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국가발개위 등 7개 부서, 「항만 수납비용 정리 및 규범화 행동방안」 발표

■ 지난 8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통운수부 등 중국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운 통상구(이하 ‘항만’으로 표기) 수납비용 정리 및 규범화 행동방안(清理规范海运口岸收费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과학적이고 투명규범적인 수납비용 체계를 기본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항만 서비스 효율을 더욱 제고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수출입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시키겠다고 제시함
- <방안>에서는 항만(해운 통상구)의 수납비용 원가를 감독심사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정부 정가(定价)의 수납항목을 실시하고, 원가 감독심사 제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는 원가 감독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임. 또한, 시장 조정가 영역의 수납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장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방안>에서는放管平(放管服, 행정권 간소화 및 이양) 개혁을 심화시켜, 각 부분이 항만의 통관 단계에서 관리 심사항목을 정리하고, 불합리하고 발전추세에 맞지 않는 사항들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화물 검수, 예선, 검사검역 위탁 등에서 시장주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항만 검사검역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의 역할 범위에 속하나 시장화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한 사항들은 정부구매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임. 항만의 수출, 수입의 입경과 서류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임
- 항만, 세관, 철도, 항공, 은행, 보험 등 정보 플랫폼과 국제무역 ‘싱글 윈도우’ 정보 플랫폼을 연계, 융합시켜 정보 공유와 연합 감독관리를 실현시키며, 수출입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과 스마트화 관리 역량을 제고시킬 것임
- 또한, <방안>은 항만 수납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압적인 자세나 강제적 서비스 및 비용 납부, 가격이 정확히 규정되지 못하는 등 규정위반 비용수납행위를 법에 의거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항만과 검사검역 단계에서 정부의 혜택이나 비용면제 대상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임
- 이외에도 <방안>은 수납모델 간소화를 추진하여, 일부 규모가 비교적 큰 항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항만 관련 기관기업들을 통합하고, 수납항목을 간소화 정리하며, 화주에게 원스톱의 납부 서비스를 보급하도록 모색할 계획이라고 제시함

■ <방안>의 전문 링크 :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2008/t20200804_1235554.html

(港口圈, 2020. 8. 6.)

<https://mp.weixin.qq.com/s/kMhHx4VEecQXWtLZHm7hQw>

중국 최초 한중일 국제전자상거래 프로젝트 엔타이(烟台)종합보세구 구축, 보하이(渤海)페리 참여

- 8월 6일, 엔타이보세항구관리위원회(烟台保税港区管委)와 보하이페리그룹(渤海轮渡集团)은 국제 전자상거래 공급사슬 플랫폼 체결식을 진행함
 - 양측은 국제 전자상거래, 해운물류, 스마트화 창고, 공급사슬 금융, 시스템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동 프로젝트는 중국 최초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해 한중일 상품무역을 주력으로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임. 양측은 엔타이보세항구의 정책 우위를 살려 ‘전시교역+국제 전자상거래’ 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세전시, 국제상거래 상품구역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물품 수령, 국제 전자상거래 상품 구매, 보세 수입, 택배 직배송 수입 등 종합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한중일 국제 전자상거래 상품의 집산지를 구축하고자 함
- 엔타이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기능이 종합된 국제 전자상거래산업원 구축
 - 2019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스자좡 등 24개 도시에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승인에 관한 동의(关于同意在石家庄等24个城市设立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的批复)>를 발표했는데, 엔타이도 이 도시들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20년 1월,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지역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的通知)>를 발표했는데, 엔타이를 수입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범위에 포함시켰음
 - 최근 엔타이 보세항구는 국제 전자상거래업무 발전을 위해 2,400㎡의 세관 표준화 검역센터를 갖추었으며, 국제 전자상거래산업원 1기, 2기, 3기 면적은 총 3만 ㎡에 달함. 이곳에서는 상품 집산, 무역서비스, 보세 전시, 국제 투자금융 등 기능이 종합되어 있으며, 산업원 내에는 교역구역, 전시구역, 상무행정 및 식당구역, 산업태 인큐베이팅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번 민관협력은 보이하페리의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였음
 - 보하이페리는 2014년 이후 한·일 크루즈 항로와 한·중 RO-RO선 항로 운영을 시작하여, 선박 면세점 경영, 국제전자상 물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고객자원을 쌓았고,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선발 강점을 갖추고 있음
 - 보하이페리는 엔타이시 해상 여객 운송량 연평균 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여객선, 크루즈, 한·중 RO-RO선 여객 수송량을 합쳐 연간 300만 명 이상임.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에서 상품 체험 센터를 설립하는 동시에 선박에서 전시장 개설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직접 찾기 서비스 모델링을 통하여 엔타이 관광쇼핑 브랜드를 만들고, 여행객들의 한·일 상품 구매 수요를 충족시켜, 엔타이시의 관광산업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코로나19로 대외무역이 침체된 가운데,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 가능성은 확대

- 한편, <2019년 중국전자상거래시점 데이터 감독측정보고(2019年度中国跨境电商市场数据监测报告)>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0.5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16.66% 증가했으며, 수입 전자상거래 시장의 교역 규모는 2.47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30% 증가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상반기 중국의 대외무역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동시에 국제 전자상거래는 거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세관총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액은 174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6.7% 증가했으며, 1분기 수출입은 동기대비 34.1% 증가함

(齐鲁晚报·齐鲁壹点, 2020. 8. 10.)

<http://www.port.org.cn/info/2020/206176.htm>

하이난 양포(洋浦) 해운업 발전 보조금 지급, 금년 1억 위안 달할 듯

- 하이난 양포 교통운송 및 해양국은 양포경제개발구 해운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해운업 발전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 업무와 관련해서 심사제도 혁신을 통해 심사 비준 기한을 단축하고, 심사 절차를 최적화시켜 해운업 발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현재까지 1차 407.31만 위안의 해운업 발전 보조금이 이미 지급되었음
- 올해 양포경제개발구의 해운업 발전 보조금은 누적 1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지급한 1차 보조금 외에 2차 해운업 발전 보조금 지급 계획도 이미 공시되었음. 올해 지급 될 해운업 발전 보조금은 누적 1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재정 보조금의 지급 방식을 통해 양포 해운업 종사자들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확보하고, 양포의 서부 육·해 새로운 통로 국제 해운 허브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게 됨
- 통계에 따르면, 양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운 보조금은 3,460.22만 위안을 지급함. 양포는 해운 보조금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항로와 물동량이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
 - 항로 분야에서 2018년 18개 항로에서 현재 31개 항로로 증가했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 55.6만 TEU에서 2019년 70.8만 TEU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 100만 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界面新闻, 2020. 08. 05.)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05_1341204.shtml

중국선급(CCS),선박업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8월 7일, 중국선급(CCS)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선박 데이터 공유 플랫폼 CSBC 1.0 관련 회의를 개최했음
- CCS의 선박업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CSBC는 '데이터 기준 제정, 데이터 공유 권한, 데이터 소급'이라는 개발 이념을 계승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신분 인증, 데이터 권한 수여, 데이터 전송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전 과정 소급 등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업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됨
- CCS는 황포원충(黃埔文冲)선박유한회사, 초상국(招商局) 에너지운송주식유한회사와 함께 선박 건조 검사 데이터 공유, 공급 측 검사 데이터 공유 등 시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선박 업계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음. 또한 이미 CSBC 플랫폼을 응용한 각 회사는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협동 효율을 향상시키며,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음 단계에서는 CCS가 업무 절차를 정리하여, 플랫폼 데이터를 다양화시키고, 선박업계의 데이터 공유 · 공동 거버넌스를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선박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게 됨
- CSBC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보안산업, 정보화 핵심 실험실, 선박과 해양 플랜트 실험 기지'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추진하는 솔루션 중 하나임
- CCS는 선주, 조선소, 제품 공장, 설계원 등 관련 업체와 연합하여 '블록체인 기술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전담팀'을 바탕으로 CSBC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됨. 또한 선박 및 해양 플랜트 데이터 공유 연맹을 구축하며, 중국 조선과 해운업에 데이터 공유를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박업계 데이터의 새로운 환경을 공동으로 건설 및 관리하게 됨

(출처 : 中国船级社CCS, 2020. 8. 11.)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008/t20200811_1341459.shtml

중국 항만 물동량 회복세 둔화 (7월 21일~7월 31일 항만생산 모니터링 및 분석)

- 중국항만협회의 <코로나19 기간 항만생산운행 모니터링 및 분석(7월21일~7월 31일)>에 따르면, 동 기간(7월 하순) 중국 연해 주요 항만의 전체화물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했으며, 수출입 물동량은 동기대비 -1.2% 감소함
 - 7월 하순, 중국항만협회가 모니터링하는 연해 8대 허브항만(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 저우산, 샤먼, 광저우, 선전)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은 동기대비 0.4% 감소했음. 하지만, 내수 컨테이너물동량이 동기대비 11.4% 증가함
 - 7월 전체로 보았을 때, 8대 허브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동기대비 3.3% 증가했고, 그중 수출입 물동량은 동기대비 1.4% 증가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가 침체되었고, 특히 중·미 무역갈등 속에 미국은 7월 31일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상시킴에 따라 향후 미주 컨테이너항로의 수요 불확실성은 더욱 커짐
- 석탄, 원유, 철광석 등 주요 벌크화물 물동량은 안정적인 증가세
 - 날씨가 더워지면서 중국 발전소들의 1일 석탄소모량이 증가하여 석탄 수요는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7월 하순, 진황다오(秦皇島)와 황화(黃驛) 2개 항만의 석탄물동량은 동기대비 7.2% 증가했으며, 황화항의 경우는 11.6% 증가함. 상기 2개 항만의 석탄 비축량도 동기대비 13.2% 감소함. 7월 전체로 볼 때 석탄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함
 - 7월 하순, 항만협회가 모니터링하는 연해 항만의 원유 물동량은 동기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7월 중순에 비해 6.8%p 하락함. 그중 닝보저우산항, 옌타이항, 다롄항의 원유 물동량 증가율이 10%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다롄항의 항만 비축량은 동기대비 51.5% 증가함
 - 7월 하순, 항만협회가 모니터링하는 항만들의 철광석 물동량은 동기대비 8.1% 증가했으며, 7월 전체로 보면 9% 증가함. 최근 북중국 항만들의 광석선의 항만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먼저 7월 하순 잦은 강우 등 기상 악화이며, 둘째,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항만 검사검역 시간이 길어진 것임. 또한, 최근 중국 내 철광석 수요가 성수기에 접어들며, 대규모의 광석선들이 항만에 집중되기 때문임
- 홍수로 인해 창장항만 물동량 회복세 저하
 - 7월 하순, 창장 유역의 홍수 등으로 인해 항만 생산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음. 7월 27일, 산샤댐의 방출 유량은 산샤갑문의 최대 통항유량 수치를 넘어선 관계로 산샤 갑문의 통항이 2일 정도 정지됨. 7월 하순, 난징, 우한, 충칭 3개의 주요 항만의 전체 화물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10.1% 감소했으며, 컨테이너물동량도 8.8% 감소함

(中国港口协会, 2020. 8. 4.)

<http://www.port.org.cn/info/2020/206132.htm>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 5대 안벽크레인 추가 투입

- 8월 8일, 상하이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에 ZPMC가 제작한 5대의 안벽크레인 ‘쩐화(振华)31’ 이 도착함
 - 이 5대 안벽크레인이 추가 투입되면서 향후 양산항 4기 자동화터미널의 하역능력은 25%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평균하역능력은 500만 TEU에 달하게 됨
 - 양산 4기 전자자동화터미널의 2019년 컨테이너물동량은 327만 TEU를 기록했으며, 2020년 상반기의 수출입 물동량은 173만 TEU로 2019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하반기 수출입 무역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 4기 터미널은 수요 만족을 위해 5대의 안벽 크레인을 추가 투입함
 - 현재 양산 4기 자동화터미널의 안벽크레인은 기존 16대에서 21대로 증가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20대의 RMG 크레인(야드 크레인)도 이미 추가 투입된 상황임. 올해 양산 4기 자동화터미널의 물동량은 400만 TEU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거대한 안벽크레인의 안전한 항만 도착을 위해 사전에 다부분간 협의를 통해 안전 보장조치들을 실시
 - 금번에 투입된 ‘쩐화31’ 안벽크레인은 총 폭 153m, 높이 90m 거대한 크기로서 항만 기항에 안전 리스크가 따르는데, ‘쩐화31’의 안전한 항만 투입을 위해, 상하이해사국은 일주일 전부터 터미널, 선박측, 도선 등 각 기관과 설치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터미널 도착 사전에는 양산항 입출항 선박의 관리를 실시하여 양산항의 협소한 수역에서는 선박의 양방향 통항을 일시 중지하기도 함

(中国新闻网, 2020. 8. 8.)

<https://baijiahao.baidu.com/s?id=1674461106110736475&wfr=spider&for=pc>